

래일에는 꽃이 핀다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리란숙

입원식날에 우리 딸이 집근처에 핀 벚꽃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저것 봐. 벚꽃이 만발해!!》

그의 얼굴엔 기쁨이 어려있었다.

이번 학년도부터 히로시마유치원을 다니게 될 우리 딸은 희망과 포부로 가득 차있었다. 새 환경이 신선하고 기대되는것 같았다.

허나 다음날부터 지나긴 림시휴원기간에 들어선다니 어머니로서는 진짜 복잡한 심정이였다.

... ..

며칠이 지나서 우리 딸이 아니나다를가 내 치마자락을 잡으며 막 졸라댔다.

《언제면 새로운 유치원에 갈수 있나요?》

《좀더 기다리면 갈수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텔레비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소식은 오직 날마다 늘어나는 코로나비루스감염자수. 누구나 다 그럴거지만 너무도 계속되는 이 현실에 나도 눈앞이 캄캄해지기만 하였다.

언제면 끝이 오는가, 언제면 평온한 생활이 돌아오는가... 이 생각이 내 머리를 돌았다.

...

어느날 우리 딸 담임선생님께서 한 동영상을 보내주셨다.

그 동영상에서는 선생님들이 힘차게 노래와 춤, 재미나는 놀이도 배워주며 또 그림책까지 읽어주시는것이였다. 마치나 선생님들이 자기곁에 있는듯 해서 우리 딸의 얼굴엔 활짝 웃음이 피였다. 그리고는 선생님들을 흉내내며 자기 몸을 꿈틀거리군 하였다.

아이들을 위해 지금의 이 순간도 수업내용이며 보육내용을 정열적으로 짜주시며 민족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한줌의 믿음을 담아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였다.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진짜 눈부셨다.

이대로 멈춰서지 못한다는게 말이야 쉽지만 실천으로 구현하시는 분들이 몸 가까이 계신다니 정말 큰 자극이 되고 힘이 되였다.

닥쳐온 고난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하듯이 지금이야말로 지혜를 얻고 정서를 키워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할것이다.

집근처에 핀 벚꽃은 다 지고 초록색잎이 돋아났다. 그걸 보면서 문득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래일에는 꽃이 핀다.》

지금에야 가슴을 울리는 그 말씀.

끝이 안 보이는 이 현실도 꼭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것을 믿고 우리 선생님들과 더불어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자.

답답해지는 이 상황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가 엄마구실을 다하기 위해 힘 쓰자.

언젠가 우리 딸이 선생님, 동무들과 즐겁게 유치원생활을 누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